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 생명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그 생명의 육도 혼도 영도 돕고 살려주리라.
2. 충성되게 하되, 끝까지 하여라. 끝에서 그동안 한 것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끝에 잘하여 그동안 한 것의 운명을 승리로, 걸작품으로 만들어라.
3. 하나님은 모든 일을 끝까지 한 후에 보시고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주신다.
4. 시작을 잘하기다. 어떤 것을 시작하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하다. 과정은 풍성하게 하고, 끝에서는 모든 일을 아름답게, 웅장하게, 신비하게 끝내야 된다. 그래야 끝에 한 대로 깨끗하게 보이고 남아진다.
5. 끝에서 승리도, 실패도 좌우된다. 끝에 잘하여라.
6. 끝에서 죽은 자를 장사지내듯 깨끗이 끝내 버려야 된다.
7. 끝에서 자를 것은 잘라서 끝내고, 이을 것은 이어서 끝내야 된다. 자를 것과 이을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8. 야심작, 하나님 상징 백보좌는 6번째 쌓을 때 끝에서 그동안 한 것을 가지고 최고로 멋있게 쌓고, 마음에 안 드는 곳은 다시 헐

고 최고 좋은 큰 돌로 바뀌서 쌓았다. 끝에 몇 년을 두고 계속 교정하며 좋은 돌로 교체하여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쌓았다. 한 번에 세계적인 대(大)결작이 나오지 않는다.

9. 높은 단계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오르게 된다. 시대가 아무리 발달해도 다음 시대가 와야 더 좋게 발달되고, 개인의 두뇌와 생각도 점점 자라고 크고 발달돼야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 행하게 된다. 야심작 하나님의 백보좌도 여러 단계를 거치고 올라서 오늘날 같이 완성됐다.

10. 휴거를 이루는 시대 천 년 역사가 왔다. 휴거도 한 번에 이루지 못한다. 육과 영이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만들고,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자기를 완전한 사랑의 신부로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11. 작품도, 집도, 환경도, 사람도 하나님의 구상대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언제 보아도 기쁘고 만족한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볼 때마다 희열을 느끼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흥분된다.

12. 수석도 창조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모양도 형상도 흠 없이 갖춰져 있는 수석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보고 만족하며 좋아하고 기뻐하고, 마음이 흥분되어 쾌감을 느끼고, 보여주며 자랑한다. 사람도 그러하고, 환경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 몸부림쳐서 만드는 것이다.

13. 자기를 하나님과 성령님의 구상대로 최고로, 흠 없이 만들어라.

그러면, 자기도 언제나 희망과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14. 처음부터 아주 완전하게는 못 만든다. 끝에 가서야, 그동안 해 놓은 전체를 보고 더 좋게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일 년 동안 행한 것들이 잘 되게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된다. 그래야, 그동안 행한 것들의 결과를 얻게 되고, 그동안 해 놓은 것에 부족한 것을 더 해서 완전하게 된다.